

나르코문학(Narcoliteratura)에 반영된 멕시코의 탈국가화와 비공식영역의 확장

박 정 원
경희대학교

박정원(2014), 나르코문학(Narcoliteratura)에 반영된 멕시코의 탈국가화와 비공식영역의 확장.

초 록 본 논문은 탈국가 현상과 맞물려 멕시코에서 최근 이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마약 산업과 폭력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투영하는 나르코문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르코문학은 범죄, 마약에 연루된 주인공과 그 주제를 다루는 서사양식으로 정의되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소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폭력과 살인을 물신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장르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 프로젝트의 실패와 비공식 부문의 팽창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나르코문학을 둘러싼 논쟁 지점을 확인하고 이 장르가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및 서사양식과 미학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그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특히, '나르코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엘메르 멘도사(Élmer Mendoza)는 마약과 폭력의 문제를 증언과 연대기로, 그리고 이후 교양소설과 탐정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멕시코 북서부의 시날로아 지역과 미국-멕시코 경계지대의 '풍속'을 그려왔다. 초기의 멘도사는 미국의 수요에 의해 마약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르코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강경진압으로 폭력을 들여온 정부를 비판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민을 공동체적 입장과 내부자적 시선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마약거래가 점점 더 산업화되고 이들의 행위가 폭력의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되자, 이중 부정의 변증법을 통해 부패와 폭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회의와 무기력감을 형상화하면서 현실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멘도사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과 비공식영역의 확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문학적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어 나르코문학, 비공식 부문, 마약 산업, 폭력, 엘메르 멘도사

본 논문은 탈국가 흐름과 맞물려 라틴아메리카-특히, 멕시코-가 겪은 최근의 현실 지형의 변화를 마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투영해주는 나르코문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멕시코의 마약 현상이 세계화 과정의 결과로 인한 비공식부문의 팽창과 관련된다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약과 폭력 문제를 다루는 작품에 문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현재까지 나르코문학을 둘러싼 비평의 지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서사가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및 초기의 주요작가들을 열거하며, 구체적으로 엘메르 멘도사(Élmer Mendoza)가 작품에서 구현하는 미학과 서사양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나르코라는 주체의 형성과 사회구조의 탐구, 지역 공동체, 마약의 산업화에 따른 영향에 관한 작가의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르코문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현재와 그 방향성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II. 나르코서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여전히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나르코(narco)라는 수식어는 마약이나 최면약을 뜻하는 나르코틱(narcotic)에서 유래하며, 일반적으로 마약과 마약거래상(narcotraficante)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 상당수의 마약상들에게서 보이는 과시적인 취향과 반항적인 태도로 인해 멕시코에서는 “무례한(rude)”, “저속한(vulgar)”, “과시적인(flamboyant)”이라는 함의가 생겨났다. 또한 종종 갑작스런 신분상승으로 인해 예의범절을 모르고 벼락부자와 같이 행동하는 메스피소나 원주민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인종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것이 문학과 연결되면서 ‘나르코문학’은 범죄, 마약에 연루된 주인공과 그 주제를 다루는 서사양식으로 정의된다(Esch 2014, 163). 전통적인 문학 진영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조차 이들 작품은 작가적 책임에 눈을 감는 일종의 도덕적 타락이자 문학의 상업화에 영합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마약

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나르코문학 전반에 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마약 거래와 폭력이라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소재를 가져왔다고 해서 ‘훌륭한’ 서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비판적인 문학적 성찰을 하고자 할 때 일상생활의 미학을 윤리적 지혜와 연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상업성’이라는 단선적이고 이분법적인 잣대보다는 상업적 요구가 정치적, 윤리적, 미학적 요구와 겹쳐지는 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폭력적 갈등에 주목하고 이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나르코현상을 다루는 서사를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López Badano 2014, 124).

즉, 마약 거래를 재현하는 서사는 현대의 분쟁적인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세계화와 탈국가화가 가져온 멕시코의 변화와 도전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베르토 폰세카(Alberto Fonseca)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지적한다.

마약 중개와 같은 세계화 현상의 산물인 나르코 서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마약에 반대하는 억압적 정책이 가진 분리와 분열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 [...] 그것들은 공식담론과 대화를 개시하며 마약 거래와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이데올로기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많은 텍스트가 [...] 마약 거래를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수요와 공급의 역동적 경제이자 자본주의 논리라는 것을 드러낸다. 동시에 바로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배양된 소비 행위를 비판하기도 한다. [...] 20세기 말의 나르코서사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돈 비가 내리는” 시기로부터 형성된 새로운 가치 체계와, 사회적 · 경제적 함의를 탐구하는 문학적 재현방식을 의미한다.(Fonseca 2009, 7-8, 필자 강조)¹⁾

- 1) 나르코 관련 작품이 일찍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나라는 콜롬비아였다.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 마약 생산과 중개의 중심이었던 이유로 멕시코보다 일찍 이와 관련된 중요한 소설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알론소 살라사르(Alonso Salazar)의 *No nacimos pa' semilla*(1990), 페르난도 바예호(Fernando Vallejo)의 *La vírege de los sicarios*(1994), 호르헤 프랑코(Jorge Franco)의 *Rosario Tijeras*(1999), 그리고 라우라 에스뜨레쁘(Laura Estreppo)의 *Delirio*(2004) 등이 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나르코와 관련된 작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의 맥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나르꼬의 문제를 다뤄온 매체는 언론과 꼬리도, 그리고 문학 이렇
게 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저널리즘 영역은 연대기(crónica)적 성격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마약산업의 진화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
을 부각시켜왔다. 반면, 대중적이고 민속적인 장르라 할 수 있는 꼬리도 음악
의 경우 공식 언론과 주류 문화적 관점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을 부각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마피아들이 노래의 생산 과정에 개입하
면서 꼬리도는 나르꼬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며 때로는 이들의 행위를 정당
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²⁾ 소설장르는 현실에 기반을 둔 허구화라는 전
제와 함께 현상 속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문제에 다층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두 매체들과 구분된다. 따라서 보다 분석적인 방식으로 현실의 복
합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III. 비공식화 현상과 하위문화의 생성

나르꼬문학을 멕시코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반영하는 매개로서 인정한다면,
그것은 초국가적 마약 산업의 성장의 원인을 제공한 세계화에 대한 문학적 재
현을 의미한다. 특히, 폰세카의 지적처럼 기존 국민문학의 엘리트 지식인이 가
지는 전통적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탈국가현상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양상
과 지역의 현실을 담지하기 위해 나르꼬서사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사실, 마약거래와 산업은 최근 이십 년 간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비
공식화(informalization) 경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
국으로의 대량 이민과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21세기 들어 멕
시코 외환소득에 있어 중요한 위치한다는 사실은 성장과 변형을 약속했던 나

2) 꼬리도와는 다른 소설장르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지만, 꼬리도가 나르꼬소설의 성장
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수의 작가들이 꼬리도의
내용을 소재로 소설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스페인 소설가 아르투로 페레스-레
베르테(Arturo Pérez-Reverte)는 『남쪽의 여왕 *La reina del sur*』(2002)의 후기에서
자신은 꼬리도를 만들 능력이 없어 소설이라는 형태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이 소설이 수백 페이지로 이루어진 일종의 나르꼬꼬리도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실패를 반증하는 증거에 다름 아니었다(이성형 2009, 52-53). 이와 관련하여 필립 맥마이클(Philip McMichael 2012, 293)은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빈곤의 그림자를 조명하면서 이 시기 동안 공식경제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인구가 급속히 팽창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공식부분의 성장과 확대로 이어진다.

‘비공식경제’는 공식경제의 생산을 보완하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과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적 ‘생산’과 경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데, 주로 합법적, 도덕적 행위에 반대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왔다.³⁾ 소위 ‘지하경제’ 혹은 ‘그림자경제’로도 불리는 이 영역은 단순히 경제의 생산 형식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맥마이클은 비공식화가 일종의 정치·문화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McMichael 2012, 312). 세금 수입을 확보하려는 국가가 경제범위를 확정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영역의 경계가 지어지는 과정은 의도적이고, 관습과 도덕에 의해 구분되는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일단 비공식부분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정부 또는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로 이 영역에서는 생존주의(survivalism)가 유일한 그리고 최상의 규칙이 된다. 마이크 데이비스(Mike

3) ‘비공식부분’이란 용어는 1973년 인류학자 키스 하트(Keith Hart)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지하경제’라는 다분히 편견이 담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이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공식경제 이외의 영역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 채택되어 왔다. 김기현, 권기수(2011, 212)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비공식부분의 폭발적 성장을 언급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정부의 갖가지 규제를 회피하는 영역을 ‘비공식부분’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마약이나 밀수, 매춘 등 소위 ‘위법’적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논문은 ‘불법’, ‘비도덕적’이라는 것의 경계 설정이 다분히 임의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의 활성화가 공식 경제시스템의 운용과 영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공식영역에 포함시키는 맥마이클과 데이비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덧붙여, 비공식부분은 ‘경제학’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학과 사회학을 포함하는 삶과 사회 전반의 양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따르고자 한다.

부문이 공식경제가 가진 제도적 틈 사이에 소규모적 형태로 존재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식경제의 무능과 부패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 힘과 영향력을 전사회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덕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거나, 불법 활동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세계화로 인해 변화된 멕시코의 현실을 비공식부문의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마약 경제가 비공식부문의 확장에 대한 징후이자 동시에 예시라는 사실로 볼 때, 이를 재현하는 나르코문학은 기존의 학문영역에서 배제되어왔던 비공식경제의 현실과 의미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나르코문학은 세계화와 탈국가 흐름이 만들어낸 질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 형태와 그것과 맞물려 형성되는 조직, 인간관계, 사고,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이 장르에게 선정주의에 기대어 지나라한 폭력을 흥밋거리로서 묘사하여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한 존재론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비공식부문이라는 현실을 재현해내는 미학적 방식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주로 소설로 대표되는 이 장르가 사용하는 서사전략, 언어와 문체, 담론적 경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나르코문학의 역사와 전개과정, 형식적·미학적인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엘메르 멘도사, ‘나르코문학의 아버지’

마약과 폭력의 문제는 이미 멕시코 전역의 이슈가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전에는 주로 시날로아주를 위시한 태평양 연안과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나르코 문제를 최초로 다루기 시작한 이들은 주로 북부의 작가들이었다. 바하 칼리포르니아주의 가브리엘 무뇨스 트루히요(Gabriel Muñoz Trujillo), 시날로아의 레오니다스 알파로 베도야(Leónidas Alfaro Bedolla), 헤라르도 코네호(Gerardo Conejo), 후안 호세 로드리게스

드러낸다. 특히 내부자에 의한 증언형식을 다수 차용하고 있어 앞서 언급했던 나르꼬 소설의 일반적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중편 「추이 살시도 Chuy Salcido」는 마약 중개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된 살시도가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는 나르꼬의 전형이라 여기던 포악하고 폭력적인 마약 우두머리와는 거리가 멀다. 가난하게 태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마약 카르텔에 들어와 오랜 기간 밑바닥에서 미국과의 국경지대까지 마약을 운반한 인물이다. 살시도는 이 일을 해오는 동안 겪은 갖가지 모험과 위험, 죽을 뻔 했던 경험,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작품은 불법적 비즈니스에 가담했다는 죄책감, 법망에 쫓기는 신세로서의 불안함과 두려움, 주위의 사람들이 잡혀가고 가족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통과 서글픔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느끼는 복합적 감정을 지방색이 강하게 느껴지는 하층민의 구어체로 표현하고 있다.⁶⁾ 흥미로운 점은 교도소에서 녹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녹취자의 존재는 오직 주인공의 진술 속에서만 나타날 뿐이다. 즉, 멘도사의 서사전략은 외부자의 시선과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적 인물의 목소리를 온전히 드러내어 공동체 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른 단편들의 경우 대부분 삼인칭 시점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 자신들의 해석을 부각시키고 있다. 장례 미사 중에 마피아들간의 총싸움이 벌어져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공포로 떠는 사람들 (「산따마리아 병원」), 마약중개상인 남편을 대신해 우연히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따라나서게 되었으나 말베르데 수호성인 덕분에 무사히 위험을 빠져나온 아내 (「말베르데를 믿는 여자」),⁷⁾ 동네 주민의 죽음을 바라보

-
- 6) 평론가들은 멘도사가 시날로아의 주도 쿨리아간의 지방색을 작품 속 인물들의 ‘꼴리체(Culiche, 꼴리아간 특유의 지방어)’ 언어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7) 헤수스 말베르데(Jesús Malverde)는 20세기 초 시날로아에서 유래한 성인(聖人)으로 그에 대한 숭배는 이 지역 뿐 아니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현재는 나르꼬들을 위한 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런 이유로 가톨릭교회는 말베르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박정원과 고메스-미첼(Park & Gómez Michel 2014, 202-214)을 참고하라.

시선이 외부와 만나는 지점에 주목한다. 멘도사는 기존의 도덕률로 이들을 매도하지도, 법에 쫓긴다는 이유로 ‘저항’의 이미지를 이들에게 부여하지도 않는다. 즉, 나르코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인물창조 방식을 피해간다. 대부분의 나르코들은 폭력의 가해자이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피해자이기도하다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초기 작품 중의 하나이지만 장르의 ‘전형성’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 오히려 ‘증언’과 ‘연대기’의 성격이 강한 측면으로 볼 때, 『당신이 숨 쉴 때마다』는 꼬리도와 소설의 중간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폭력의 계보학과 벌거벗은 생명의 재생산

이후 십여 년이 지나 출간된 소설 『재니스 조플린의 연인 *El amante de Janis Joplin*』(2001)은 증언-이야기 형식을 넘어서 보다 본격적인 소설의 형태, 특히 장편 교양소설에 가깝다. 197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청년이 나르코 산업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이 비즈니스의 구조와 현실을 보여주는데 특이하게도 주인공은 “입이 항상 반쯤 열려있어 파리가 들어갈 것 같은” 지능이 조금 모자란 인물이다(Mendoza 2001, 15). 한 파티에서 우연히 동네 유력 마피아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그러다 미국으로의 마약 운반을 도와주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나르코의 길로 들어서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전설적인 가수 재니스 조플린과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그것이 사실인지 혹은 주인공의 환상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돌아와서는 게릴라로서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다 경찰로부터 반정부인물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소설은 이 바보 주인공 다비드 발렌수엘라의 행적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재니스 조플린이 상징하는 환각과 히피문화는 당시 미국사회의 문화적 변동과 함께 마리화나 등의 마약 소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상황을 상징한다. 마약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이를 위한 공급원을 필요로 하며 멕시코는 마약 운

의심하고 사회의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소설 역시 『당신이 숨 쉴 때마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계의 수단으로 이 비공식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포함’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멘도사에게 이들은 주류사회와 권력의 ‘버려진 존재’이자 아감벤의 용어로 현대의 ‘벌거벗은 생명’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만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르코들을 미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이 마약산업이 점점 더 산업화되면서 끝없는 폭력을 야기하고 유사 전쟁 상태까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또 다른 인물을 통해 형상화한다. 주인공을 교도소에서 꺼내 준 친구는 대학생 신분이었다가 마피아의 딸과 결혼하면서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된다.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은 그의 권력은 지역 내의 마약 거래를 통제할 뿐 아니라, 경찰과 뒷거래를 하고 감옥에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멘도사는 이 인물을 통해 다비드와는 다른 산업화되고 부패한 나르코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괴물의 출현으로 묘사한다. 학생운동가였던 또 다른 친구와 이 마피아의 대화는 멕시코의 사회변화에 대한 멘도사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냐? 거리를 다니면서 총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 말고 더 있어? 출로, 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너 같은 마약상이 우리가 민중의, 민중을 위한 정부를 통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누가 그러던? 정부가? 은행가들이? 기업가들이? 인마, 내 생각이야, 난 정치나 제국주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너희가 못 이기리라는 것은 알아. 너희가 이긴다면 내 불알을 잘라버리마. 우린 승리할거야, 출로, 미래는 우리 것이니까. 내 불알 두 쪽을 걸고 맹세하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이 나라는 다 나처럼 나르코가 될 거야. 차토, 이제 사람들은 토지를 원하지도 않고, 공장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원하는 게 뭘 줄 알아? 돈다발이야.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안 그래? 사람들은 자기만 잘살면 된다 이 생각한다고, 넌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그건 네 생각인거고 놀라운 것도 아니지. 넌 항상 삐뚤부르주아였지. 하지만 난 내 싸움을 계속할거고 그게 내 꿈이다. 마약상이 꿈에 관해 알 턱이 없겠지만 말이야.(Mendoza 2001, 149-50)

의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진다. 그러나 마약거래가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산업화, 제도화, 폭력화로 치닫는 현실 앞에 낭만적 태도는 설 자리를 잃고 비관적인 전망이 남은 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비공식영역의 계보학을 탐구함으로써 작가는 나르코에 대한 일면적이고 단선적인 시선을 넘어 입체적인 인물상과 함께 복합적인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VI. 나르코현상에 관한 이중 부정의 변증법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재니스 조플린의 연인』의 한 부분은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는 한편 미래를 예견한다. “몇 년이 지나면 밤에 거리를 다니지도 못할 거야. 나라 전체가 폭력의 천국으로 변할 거고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폭력이 남용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Mendoza 2001, 147). 물음으로 끝나는 이 독백은 이후 작품들에 대한 예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작인 『은색 탄환 *Balas de plata*』(2008)은 나르코 현실에 대한 우려와 무력감을 작품 전체를 통해 형상화한다.

노벨라 네그라(범죄/탐정소설) 형식을 띤 이 작품은 시날로아주의 수도 폴리아칸에서 은으로 만든 총알이 관통해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체의 주인은 유력한 정치가의 아들로 판명되고, 주인공 에드가 멘디에타 형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는 조사 과정 속에서 점점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리게 된다. 그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게다가 그녀가 이 지역의 마피아 두목 발데스와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러다 발데스가 한편으로는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마을에 나누어 주는 선량한 나르코라는 것과, 동시에 죽은 남자의 아버지인 정치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딜레마에 빠진다.

멘도사는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형사가 만나는 인물들을 통해 마약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등장시킨다. 거대 마약상 조직은 정치권과 대립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들과의 결탁을 통해 제도적 비호를 받으며 사업

의 주도권을 쥐려한다. 그렇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관료, 정치가들에 비해 오히려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을 돕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마피아를 보면서 주인공은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를 통해 멘도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하고(혹은, 진실을 물어버리고)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서 이 소설은 끝난다. “멘디에타는 혼자 남겨지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러기는 싫었지만 어떤 것도 그 반대로 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삶, 사랑, 여자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했다”(Mendoza 2008, 253-54).

펠릭스 로메로(Félix Romero 2008, 49)는 이 소설이 내러티브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경찰-탐정의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지 못하며, 이로 인해 사건의 해결이라는 탐정소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실패’를 오히려 작가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은 거대하고 알 수 없는 현실을 재현할 언어를 찾지 못하며, 심증은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거대한 범죄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인공 형사는 마지막에 사건을 해결하여 영웅이 되는 탐정소설의 전형을 따르지 않지만,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 현실을 지배하는 공고한 부패의 고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인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에드 크리스찬(Ed Christian 2001, 7-11)은 진실이 밝혀지고 사건의 해결되어 기존의 질서가 회복되는 중심부 국가의 탐정소설과는 달리 그 의도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주변부국가에서 생산된 노벨라 네그라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탐정은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이 되는 대신, 중심과 주변, 안과 밖, 시스템과 희생자들 사이에 위치하며 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문제적 상황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그나시오 코로나(Ignacio Corona 2005, 181)의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멘도사의 작품을 ‘멕시코의 새로운 탐정장르(el

neopolicial mexicano)’로 범주화하면서 이를 세계화와 탈국가 현상과 연결시킨다. 베버는 근대의 국가가 사회 내에서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규약에 따라 국가의 폭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법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는 국가의 기능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하며 이를 틈타 나르코, 마피아, 범죄조직이 국가가 독점하던 폭력에 도전하고 나눠가지게 되면서 이를 되찾으려는 정부와 이들 조직 사이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쟁탈로 물리적 폭력이 가시화된다고 말한다. 멘도사의 『은색 탄환』은 이 지점에 개입하여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갈수록 폭력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이들은 축적한 경제적 자원을 통해 사회에 부를 일정 정도 환원하기도 하는 모순적 존재다. 국가로부터 질서회복을 바라기에는 공권력은 무능한데다 부패하기까지 하다. 즉, 민족-국가의 위기와 물질적 폭력의 폭발을 주인공 멘디에타의 경우처럼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공포라는 심리적 분열의 상황까지도 초래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멘도사의 소설이 물질, 심리적 폭력의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주체와, ‘공포의 문화(cultural de temor)’의 형성이라는 현재 멕시코 사회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한다.⁹⁾

전작 『재니스 조플린의 연인』과 이 소설 모두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실패한다. 다비드 발렌수엘라의 자살은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주체가 희생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제도권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멘디에타의 경우 제도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폐허화된 현실을 바탕으로 도덕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폭력과 부패를 물질화하는 센세이션얼리즘의 함정 빠지지 않는다(Gency Beltrán Félix 2008). 멘

9) ‘폭력’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문화로서 자리 잡으면서 그 결과로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사회심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마이클 타우직(Micheal Taussig)의 *The Nervous System*(Routledge, 1992)와 후안 코라디(Juan E. Corradi), 파트리시아 웨이스 페이건(Patricia Weiss Fagen), 마누엘 안토니오 카레톤(Manuel Antonio Carretón)의 *Fear at the Edge*(U. California P, 1992)을 선두로, 특히 수사나 로커(Susana Rotker)는 *Citizens of Fear*(Rutgers UP, 2002)를 통해 멕시코에서 폭력의 일상화가 가져온 영향에 관한 문화사회적 분석을 시도한다.

도시는 탈국가 시대의 징후로서 드러나는 질서, 권위, 가치의 붕괴와 대안의 부재 속에서 거대한 권력으로 떠오른 마약산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회의라는 ‘이중 부정’의 서사전략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나르꼬의 현실을 복제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의 변증법을 통해 현실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VII. 결론 - 나르꼬문학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진 프랑코(Jean Franco 2001, 221)는 『지식인 도시의 쇠퇴와 몰락 *The Decline & Fall of the Lettered City: Latin America in the Cold War*』에서 국가 프로젝트의 실패와 기존 지식인의 한계를 목도하면서 문학 장르가 과거에는 국가에 대한 타자로 간주하던 주체들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헤게모니를 갖지 않은 이 타자는 도시의 하층민과 범죄자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의 고민과 열망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윤리, 도덕률과는 다른 가치와 사고체계를 보여준다. 특히 이들 주체를 둘러싼 현실과 경험, 트라우마를 그린다는 점에서 프랑코는 탈국가시대의 이 새로운 경향을 ‘세계화의 풍속주의(*costumbrismo de la globalización*)’로 명명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첫째는 이 작품들이 범죄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즉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서 바라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민족-국가의 위기와 관련된 초국가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멘도사는 마약과 폭력의 문제를 증언과 연대기로, 그리고 이후 교양소설과 탐정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시날로아 지역과 미국-멕시코 경계지대의 ‘풍속’을 그려왔다.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활용한 이유로는 우선 시점의 다양화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멘도사는 ‘나르꼬’에 대해 구축된 외부적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르브나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내부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술, 고백이라는 방식을 택한다. 이후에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을 탐구하고, 비공식경제와 폭력의 문화에 진입하게

되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성장소설이라는 틀을 가져오기도 하며, 탐정소설을 통해 현실과 기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한다.

또한, 이 장르의 다양성은 마약과 폭력이라는 현실의 진화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초기 작품에서 멘도사는 미국의 요구와 수요에 의해 마약 재배와 수송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르코들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강경진압으로 폭력을 들여온 정부를 비판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민을 공동체적 입장에서 담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마약거래가 점점 더 산업화되고 이들의 행위가 폭력의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되자 그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부패와 폭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감을 실패의 경험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피아 차보 구스만(El Chapo Guzmán)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이를 대서특필한 주류 미디어는 국제범죄 조직의 향후를 논하면서 드디어 마약과의 전쟁이 끝나갈 전조라는 호들갑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피아 우두머리를 잡아들인다고 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의 수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금지정책(politics of prohibition)이 지속되는 한 이 비즈니스는 불법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성을 끊임없이 내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경제적 불평등이 빈곤계층의 비공식영역으로의 진입을 가속화시켜 왔으며 멕시코의 나르코 현상은 탈국가화와 맞물려 여전히 커다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멘도사는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문학창작교실에서 소설가 지망생의 삼분의 이가 현재 나르코와 폭력을 테마로 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행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극적인 소재에 편승하여 폭력을 물신화하는 위험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최근 출간된 작품의 상당수가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다. 또한, 이 장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학의 일부로서 유의미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나

윤리가 사라진 물신화된 사회가 낳은 것이 바로 나르코문학이라는 역설이 존재하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장르는 한계만큼이나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펠리페 올리베르(Felipe Oliver 2012, 105)는 나르코문학을 여전히 새롭고 실험적인 성격으로 인해 규정하기 힘든 일종의 하위-장르(subgénero)로 정의하고 있다. 이 장르가 국민경제의 위기와 비공식부문의 성장에서 발생하는 민감하면서도 논쟁적인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국민문학의 틀이 담보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가져온 충격과 권력지도의 변화, 주변부적 주체가 겪는 트라우마와 이들의 도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글로컬(glocal) 문화의 한 가지 예로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태도로 이 현상에 접근하기보다는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현실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문학적 생산물로서 이 장르의 진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권기수(2011),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 자원, 불평등, 그리고 개혁』, 한울아카데미.
- 마이크 데이비스(2007), 『슬럼, 지구를 뒤덮다: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김정아 옮김. 돌베개.
- 이성형(2009),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그린비.
- 조르조 아감벤(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 필립 맥마이클(2012),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조효제 옮김, 교양인.
- Acosta, Abraham(2012), “Hinging on exclusion and exception: Bare life, the US/Mexico border, and ‘Los que nunca llegarán,’” *Social Text*, 113, pp. 103-123.
- Beltrán Félix, Geney(2008), “Balas de Plata, de Élmer Mendoza,” <http://www.etraslibres.com/revista/libros/balas-de-plata-de-elmer-mendoza>.
- Christian, Ed(ed)(2001), *The Post-Colonial Detective*, New York: Palgrave.
- Corona, Ignacio(2005), “Violencia, subjetividad y mediación cultural: un abordaje al

- naepoliciano a través de la narrative de Élder Mendoza,” Juan Carlos Ramírez-Pimienta and Salvador C. Fernández(Ed.), *El norte y su frontera en la narrative policiaca Mexicana*, México, D.F.: Plaza y Valdés, pp. 175-201.
- Esch, Sophie(2014), “In the Crossfire: Rascón Banda’s Contrabando and the “Narcoliterature” Debate in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1, pp. 161-176.
- Fonseca, Alberto(2009), *Cuando llovió dinero en Macondo: literature y narcotráfico en Colombia y México*,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 Franco, Jean(2002), *The Decline & Fall of the Lettered City: Latin America in the Cold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Gewecke, Frauke. “El poder y el narco caminan de menera paralela, se buscan, se atraen,” Humboldt, <http://www.goethe.de/wis/bib/prj/hmb/the/154/es6571958.htm>.
- Grillo Ioan(2011), *El Narco: Inside Mexico’s Criminal Insurgency*, New York: Bloomsbury Press.
- Herlinghaus, Hermann(2013), *Narcoepics: a global aesthetics of sobriet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López Badano, Cecilia(2014). “Drug Trafficking and Literature: Dangerous Liaison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1, pp. 130-142.
- Mendoza, Élder(1991), *Cada respiro que tomas*, México, Sinaloa: Investigación y Fomento de Cultura Regional del Gobierno Del Estado de Sinaloa.
- _____(2001), *El amante de Janis Joplin*, México D.F.: Tusquets Editores.
- _____(2008), *Balas de plata*, México D.F.: Tusquets Editores.
- Moraña, Mabel(2004), *Crítica impura*, Madrid: Iberoamericana.
- Oliver, Felipe(2012), “Narconovela mexicana. ¿Moda o subgénero literario?,” *Taller de Letras*, 50, pp. 105-118.
- Ovejero, José(2012), *La ética de la crueldad*, Barcelona: Anagrama.
- Parra, Eduardo Antonio(2004), “El lenguaje de la narrative del norte de México,”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30, No. 59, pp. 71-77.
- Park, Jungwon & Gómez Michel(2014), “The cult of Jesús Malverde: Crime and sanctity as elements of a heterogeneous modernit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1, pp. 202-214.
- Rueda, María Elena(2009), “Dislocaciones y otras violencias en el circuito transnacional de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Revista de crítica literaria latinoamericana*,

Post-national Mexico and The Expansion of Informal Sector in Narcoliterature

Jungwon Park

Kyung Hee University

Park, Jungwon(2014), Post-national Mexico and The Expansion of Informal Sector in Narcoliterature.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on the so-called “Narcoliterature,” which reflects on the issue of drugtraffickers and their violence associated with Mexico’s post-national and global contex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owever, this genre has been accused of excusing illegal and immoral activities by taking advantage of people’s curiosity and eventually fetishizing violence and murder. Other critics, on the other hand, began to appreciate this genre since it demonstrates not only the failure of national project and the explosion of informal sector as a resul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ut that it also invites us to critically understand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 of Latin America. This study, thus, aims at exploring its possibilities as well as limits by highlighting historical evolution of the drug industry and by examining esthetical elements of Narconovels. In particular, Élmer Mendoza, known as the “father of Narcoliterature,” has showed the regional “costumbres” of Sinaloa and US-Mexico borderlands in the different forms of literary genres such as testimony, reports, Bildungsroman, and detective novel. First, Mendoza focused on recovering the “voiceless” voices of small traffickers, stigmatized and accused by the government and official media by describing them as victims of transnational politics of “prohibition.” However, as the drug business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institutionalized causing an endless circle of violence and vengeance, he tends to distance himself from his earlier opinion and to focus more on unveiling the structure of corruption and impunity of the Post-national Mexican society. In doing so, Mendoza brings us to cas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impacts of neoliberal economy and the explosion of informal sectors.

Key words Narcoliterature, Informal Sectors, Drug Industry, Violence, Élmer Mendoza